



# ‘총알 탄 커플’ 임희남-김하나 백년가약

〈광주시청〉

## 지나해 한국그랑프리 100m 동반 석권

### 육상계 선후배들 축하 속 새인생 설계

한국 남녀 육상의 간판 스프린터 임희남(26·광주시청)과 김하나(25·안동시청)가 12일 화축을 맞았다. “총알 탄 커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육상계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부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2005년 인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가진 합숙훈련 때 가까워진 둘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서울(임희남)과 안동(김하나)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전화로 사랑을 키웠고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임희남-김하나는 현재 공개된 러블 커플인 이연경(29·안양시청)-이정준(26·경찰대), 도야 커플인 정순옥(27·안동시청)-지재형(26·문경시청) 중 가장 먼저 식을 올렸다.

남녀 100m에서 수년째 국내 정상을 지켜온 임희남과 김하나는 지나해 한국그

랑프리육상대회에서는 100m를 동반 석권,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키 188cm로 한국 단거리 선수로는 우수한 체격을 갖춘 임희남은 일찍부터 해묵은 100m 한국기록을 깰 0순위 후보로 꼽혔다. 2007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준결승에서 10초36을 찍어 단숨에 서말구가 1979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작성한 10초34의 벽을 넘을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초속 2.1m의 바람이 분 탓에 기준풍속(초속 2.0m 이하)을 넘어 기록이 공인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신기록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게 했다.

이후 꾸준히 10초4~5대를 찍다 올해 6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10초32를 찍었다.

31년 만의 한국신기록 영광은 같은 대회에서 10초31, 10초23을 연거푸 기록한 김국영(19·안양시청)에게 내줬으나 단거리 대표팀 만행으로서 멈추지 않고 진화



〈임희남〉



〈김하나〉

하는 모습을 보여 관계자들에게 큰 믿음을 안겼다.

김하나의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트랙의 여왕이다.

지나해 전국체전에서 100m와 200m, 400m, 1600m 계주에서 4관왕을 달성해 육상 단거리 선수로는 최초로 전국체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특히 200m에서 23초69를 찍어 23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에는 발목을 다쳐 제대로 뛰지 못했고 대표팀 훈련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속팀에서 지친 심신을 달랜 만큼 내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제 기량을 펼칠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남뉴스

# 시민구단 ‘광주FC’ 출발 좋네

광주 FC가 호남대와 첫 연습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11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잔디구장에서 열린 호남대와의 연습경기에서 임선영과 박현의 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지난 1일 공식 훈련에 돌입한 이후 가진 첫 번째 연습경기에서 광주는 전반 3-4-1-2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호남대를 압박했다. 6일 일본에서 돌아온 김동섭도 그라운드에 나섰다.

후반 4-4-2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꾼 광주는 유동민과 박현을 투입으로 기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전력을 점검했다. 185cm 이상의 장신 선수들이 포진한 광주는 재공권을 장악, 역습으로 호남대를 공략했다.

신고식을 치른 최만희 감독은 “전반전은 개인기량 위주의 팀을, 후반전은 경기 호흡력 위주의 팀을 구성했다”며 “빠른 역습과 유기적인 움직임,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이

## 호남대와 첫 연습경기서 완승

### K-리그 중위권 도약 해볼 만

기는 축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반 추가골을 터뜨린 박현은 “아직 선수들 간에 손발이 척척 맞지는 않지만 팀 분위기가 좋아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며 “내년 시즌 중위권 도약이 목표인 만큼 부지런히 뛰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는 14일과 15일에도 호남대, 조선대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獨 함부르크 11월 ‘최고의 선수’

2011 아시안컵에 나설 축구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18·함부르크)이 독일 함부르크 지역 신문이 선정한 ‘11월 함부르크 최고의 선수’에 뽑히는 영광을 차지했다.

독일 일간지 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지는 12일(한국시간) “독자를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인터넷 투표에서 손흥민이 함부르크의 11월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며 “응답자의

35%가 손흥민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아벤트블라트는 최근 홈페이지에 ‘11월 함부르크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를 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해 블라덴 페트리치, 뤼트 판 니스텔로이, 투나이 토른, 피오르트 트로츠포스키, 조너선 피트로이아 등을 후보로 올렸다.

이에 대해 아벤트블라트는 “한국 출신의 18세 공격수 손흥민이 함부르크 팬들의 마



음을 사로잡았다”며 “손흥민은 지난 달 하노버와 경기에서 두 골이나 터뜨리는 활약을 바탕으로 동료를 훨씬 앞선 35%의 표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에 이어 ‘9월의 함부르크 선수’로 뽑혔던 피트로이아와 트로츠포스키가 다음 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연남뉴스



아시아 프로축구 챔피언 성남 일화가 12일 오전(한국시간) UAE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10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일 와흐다와의 8강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사진은 성남 조동건의 득점 후 환호 모습. /연남뉴스

# 성남일화, “인턴 밀란 한판붙자”

## 알 와흐다 4대 1 완파

### 클럽 월드컵 4강 진출

아시아 프로축구 챔피언 성남 일화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알 와흐다를 꺾고 유럽 최강 인턴 밀란(이탈리아)과 격돌한다.

성남은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UAE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10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8강 경기에서 볼리나(콜롬비아)와 사사(호주), 최서공, 조동건의 연속골로 알 와흐다를 4-1로 완파했다.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성남은 이날 승리로 대회 4강에 올라 16일 오전 2시 인턴 밀란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4강에 직행한 인턴 밀란은 2009-201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자 정규리그(세리에A)와 FA컵(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정상에 올라 시즌 3관왕을 차지한 세계적 명문 클럽이다. /연남뉴스

성남은 4강 진출로 최소 200만 달러(4위 상금)의 부수입도 확보했다.

성남은 대회 개최국 클럽 자격으로 출전한 알 와흐다를 맞아 라운드치치를 최전방에 세우고 좌·우에 볼리나와 조동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최성국을 배치해 골 사냥에 나섰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전광진과 김성원이 호흡을 맞췄고, 포백 수비진은 왼쪽부터 홍철·사사·조병국·고재성으로 꾸렸다. 골문은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정성룡이 지켰다.

성남은 일찌감치 균형을 무너뜨렸다.

전반 4분 볼리나가 선제골을 뽑았다. 미드필드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찰러준 공을 상대 수비수가 건어냈지만 아크 정면에 있던 볼리나에게 떨어졌고, 볼리나는 바로 왼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7분 동종골을 허용했지만 성남이 3분 만에 다시 리드를 잡았다.

볼리나의 코너킥을 AFC 올해의 선수인 주장 사사가 헤딩으로 알 와흐다 골문에 꽂아넣었다. /연남뉴스

## 광주시 생활체육회

### 동호인클럽우수단체 선정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지난 10일 ‘2010 국민생활체육 유망가 시상식’에서 동호인클럽육상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전국 16개 시·도 생활체육회와 종목별연합회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გი걸린 사무처장은 지난 11월 2010 광주 전통종목전국대회를 윈민히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신규동호인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구생활체육회 김형한 지도자도 우수생활체육지도자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외에 광주시물리치기연합회 김도희 회장(2010 회원단체장 부문)과 광산구생활체육회 양기만 지도자·북구생활체육회 송현 지도자(우수지도자 부문), 광주광역시배구연합회 피너스클럽(우수 지역동호인 클럽)이 국민생활체육회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산 행 안 내

**12월 14일(월)**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14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

**12월 15일(수)**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15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

**12월 16일(목)**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16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

### www.daewontour.com

기차여행모집 태백선 눈꽃축제-1월21일 출발 (무박2일) 1인당비 성인·청소년 85,000원 경노 80,000원 어린이(12미만) 70,000원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14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

**12월 19일(일)**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19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

###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영업중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14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

**12월 22일(수)**  
▲광주동산악회 남해 대방산, 속강산행(바다초당) 12월22일(8시) 7시30분 상무지구 도시교통공사출발(7시40분 영주체육관주차장) 7시50분 신성계교전광대/8시 문태회관후문버스승강장\*다음카페: 광주동산악회 T.011-638-4638, 010-4976-6575